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November 13, 2026 Vol. 1032



오렌지한인교회(정유성 목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다. ⓒ오렌지한인교회

오렌지한인교회 50주년 희년의 복음 선포하며 흩어지는 교회

희년은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존귀함을 회복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희년의 주인
정유성 담임 목사 위임식 및 신임 직분자 임직

오렌지한인교회(정유성 목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희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오렌지한인교회는 창립 50주년 희년 축제의 일환으로 양춘길 목사(뉴저지 필그림선교교회)를 초청해 6일부터 8일까지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8일 오전 11시 15분 주일 예배에서 양춘길 목사는 누가복음 4장 16~19절을 본문으로 '다시 시작되는 은혜의 해,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양 목사는 희년이 죄와 억압에 매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의 존귀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희년의 복음을 교회 담장 너머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창립 50주년을 맞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다.

양 목사는 고대 이스라엘의 희년을 설명하며 설교를 시작했다. 일곱 번의 안식년이 지난 50년째 해가 되면 대속죄일에 숫양의 뿔 나팔이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빚과 종살이에 얽매였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소식이었다고 했다.

그는 "희년은 빚진 자에게 무조건적인 탕감과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쉼을 허락하는 기적적인 해"라고 말했다.

이어 오렌지한인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희년의 문 앞에 선 것이라며, 성도들에게 진정한 영혼의 쉼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돌아볼 것을 권면했다.

양 목사는 희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십자가를 통한 참된 해방과 자유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본래의 정체성 회복이다.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성도는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에 억눌려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의 복음을 직접 선포하셨다고 설명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장면을 언급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명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걸어 다니시는 희년으로 오셨다. 그분의 선언은 말씀으로만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억눌린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사건으로 나타났다."

토마스 맹 기자 ➔ 2면에서 계속



하이랜드파크연합감리교회.ⓒWikimediaCommons/HighlandParkUMC

부시 전 대통령 부부 UMC 탈퇴 추진 교회 지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로라 부시 여사가 연합감리교회(UMC) 탈퇴를 추진하는 미국 텍사스주 대형교회 하이랜드파크 감리교회(Highland Park Methodist Church)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교단과의 법적 분쟁 에서 진행된 교회 탈퇴 투표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시 전 대통령 부부는 1980년대부터 댈러스에 위치한 하이랜드파크 감리교회에 출석해 온 교인이다. 최근 이들은 교회의 담임목사인 맷 터글 목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하이랜드파크 감리교회는 지난달 교인 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UMC 탈퇴를 결정했다. 교회는 교단의 통치 규정 변경을 둘러싸고 지역 연회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UMC 호라이즌 텍사스 연회는 해당 탈퇴 투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루벤 사엔스 주니어 감독은 앤디 루이스 목사를 하이랜드파크 교회의 새 담임목사로 임명하고, 기존 담임목사인 터글 목사에게는 다른 업무를 맡겼다.

이에 하이랜드파크 교회는 터글 목사를 여전히 담임목사로 인정하고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프레디 포드는 지난 6일(이하 현지 시간) 뉴욕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부시 부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중을 충실하게 이끌어 온 맷 터글 목사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드는 부시 전 대통령 부부가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인 투표에도 참여했다고 전했다.

1916년 '유니버시티 교회(University Church)'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하이랜드파크 감리교회는 UMC 내에서도 규모가 큰 교회 중 하나다.

UM데이터(UMData)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이 교회는 정기 출석자 5,000명 이상, 등록 교인 약 1만5,700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4면에서 계속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내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믿고 선택하시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13-700-3239 정부보조 상담 환영
yunyoungkwag@gmail.com
3030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NEWSTAR Realty & Inv. DRE# 01935957 곽 윤 영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교회및비영리단체도 최대 40%를
태양광설치비의 현금으로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NICHE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LEARN MORE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남가주새누리교회, 특별새벽축제서 “산 소망을 붙잡자”

박성근 목사 “영적 긴장감으로 깨어 있어야”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가 지난 2일부터 2026 총동원 특별새벽축제를 ‘산 소망을 붙잡자’(베드로전서 1:3)라는 주제로 3주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성근 목사가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긴장감과 참된 가치관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박 목사는 지난 4일(수)과 5일(목) 오전 5시 15분 특별새벽축제에서 각각 ‘영적 긴장감이 필요하다’(베드로전서 1:3-17), ‘무엇에 박수칠 것인가?’(베드로전서 1:18-2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성근 목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영적 긴장감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벧전 1:13)고 권면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의미라고 했다.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가 지난 2일부터 2026 총동원 특별새벽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 기독일보

그는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첫째는 건강한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구원의 완성과 완전한 승리, 자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소망이다.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다.

둘째는 건강한 변화다. 박 목사는 세상 문화에 동화된 삶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며, 예수님을 나타내기 원한다면 거룩한 삶을 통해 변화가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말씀과 성령이라는 핵심 요소를 붙들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셋째는 건강한 영성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건강한 영성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과 용서가 있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성도들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다.

5일 설교에서 박 목사는 ‘무엇에 박수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했다.

그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그들의 성취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박 목사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영원한 가치와 일시적인 가치를 구별하도록 가르쳤다며,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초대교회가 자랑했던 힘의 원천도 세상적 권세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세 가지 영적 가치로 새 생명, 새 열매, 참된 영광을 말했다.

첫째는 새 생명에 박수쳐야 한다. 박 목사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대속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며,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슬에서 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와 사망에 묶인 우리를 건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했다.

둘째는 새 열매에 박수쳐야 한다. 육신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는 참된 영광에 박수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지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삶에 영원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설명했다.

토마스 맹 기자

미국 CRC 교회들을 방문하며 배운 교회의 본질

➔ 1면 기사 〈오렌지한인교회 50주년〉에 이어서

그는 또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오랜 세월 육체적 고통과 수치 속에서 살아온 여인을 예수님이 불러 세우시고 병에서 놓임을 선포하셨다.

양 목사는 “18년 동안 매인 바 된 여인을 운명의 굴레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의 본질이다. 이는 육체의 치유를 넘어 억눌린 영혼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회복시키는 사건이다”고 했다. 이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영적 정체성의 회복을 강조했다. 당시 세리는 동족의 재산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삭개오는 부를 얻었지만 공동체로부터 외면받는 사람이었다.

양 목사는 “삭개오는 돈을 모았지만 존엄성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영적인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며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셨다”고 말했다. 또한 테네시주에서 태어난 한 소년의 일화를 소개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양춘길 목사. ⓒ 오렌지한인교회

사생아로 태어나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성장한 소년은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목회자로부터 “나는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안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 한마디는 소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훗날 테네시 주지사를 지낸 밴 쿠퍼는 그날을 자신의 진정한 생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양 목사는 “희년은 세상에서 낙인찍히고 비천한 자리에 처한 사람들을 건져내어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본래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사건”이라고 했다.

양 목사는 희년의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강조했다.

그는 구약의 희년 나팔이 아무 때나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물이 드려진 후에야 선포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참된 자유가 희생과 대속을 통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주목했다. 양 목사는 이 말씀이 당시 상업 거래에서 부채가 완전히 청산됐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됐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빚을 완전히 갚으신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됐다”고 했다. 양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은 성도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이제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파송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렌지한인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져 왔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교회 안에서만 기쁨을 나누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목사는 1996년 오렌지한인교회를 사임한 후 미국 CRC 교회들을 방문하며 배웠던 교회의 본질을 나눴다. 당시 여러 목회자가 자신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의 변화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때까지 사람들을 모아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방의 문을 열어주는 희년의 통로가 되는 것이 오렌지한인교회의 사명”이라고 했다.

한편 오렌지한인교회는 이번 감사축제에서 지난 1일 기념 음악회와 8일 오후 2시에 감사예배를 드리고, 신임 직분자 임직식과 전교인 성경필사 봉헌 및 장학금 수여식과 더불어 담임목사 위임식을 거행했다.

정유성 목사는 “목사에게 좋은 성도와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며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교회와 성도들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늘 소원하고 기도하던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큰 감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과 10월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순식간에 부모님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11월 이 위임식을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있다”며 “그런 마음으로 이 위임식에 참석했다”고 했다.



이윤화 버스킹 콘서트, 소스물을 물들인 가을 음색

〈소문의 낙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퇴사할게요〉, 〈선한 능력으로〉, 〈꽃들도〉 등으로 위로 전해

지난 11월 7일 (토) 오후 3시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이윤화 선교사의 버스킹 공연이 열렸다.

이번 공연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순회 공연의 일환으로, 앞서, 뉴저지에서 공연을 마쳤으며, 이어 11월 8일 밸리주하나교회에서 공연하고, 13일(금) 오후 6시 세계등대교회와 15일(주일) 오전 11시 30분 나성영락교회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공연은 라디오 코리아 한정훈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이윤화 선교사는 관객들과 대화하며 〈행복을 주는 사람〉, 악뮤의 〈소문의 낙원〉, 〈하나모(花も, 한국어 명: 꽃들도)〉, 〈장가갈 수 있을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퇴사할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선한 능력으로〉, 〈소원〉 등을 불렀다.

이윤화 선교사는 일본에서의 찬양 사역에 대해, 또 찬양사역을 통해 얻는 위로와 은혜에 대해 나누고, 관객들의 신청곡을 부르며 일상 가운데 쉼과 위로를 선사했다.

한정훈 아나운서의 "일본에서 버스킹을 하시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윤화 선교사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감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음악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답했다.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일본어로 부르며,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찬양이고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안아주고 경우가 참 많은데,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가족끼리도 그런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다"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말 자체 가 그들에겐 특별하고 감동적으로 다가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찬양과 음악을 통해 관객에게 위로를 전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라는 그는, 이날 계획된 마지막 곡을 부른 후에도 관객들이 계속해서 신청곡을 요청해 공연을 이어갔다.



소스몰에서 이윤화 선교사(오른쪽)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됐다. 왼쪽은 한정훈 아나운서.ⓒ 신정호 기자

이날 공연에는 반주 엘리킴 집사와 음향 이수용 간사가 함께했다. 이 공연은 기독일보가 주최하고, 크리스천 다음 세대 연구소(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가 주관하고, 믿음장로교회, 복음장로교회, 밸리주하나교회, 세계등대교회, 나성영락교회, BTS 솔라 디자인, 센터메디컬그룹, Trinity MS, The Source, 미주복음방송이 후원했다.

'미남 오빠'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이윤화 선교사는 일본 전역을 순회하며 찬양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CCM 가수이자 찬양 선교사로, 2010년부터 일본에서 16년째 선교 및 음악 전도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2007년 복음성가제에서 대상과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 노문환 목사님과의 만남이 일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사역 초기에는 대학교 사역과 한류를 이용한 전도에 집중했으며,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는 피난소를 방문해 위로 콘서트를 열었다.

2014년도 쿠마모토에 교회를 개척하신 한 사역자의 부탁으로 찬양예배를 인도하던 중 어렸을 때 헤어졌던 어머니와 재회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왔지만 1년 만에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곡한 곡이 '이땅은'이다.

유튜브 채널 'leeyunhwa1129'와 페이스북 계정(yunhwa1129)을 통해 찬양과 사역 소식을 전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다시 예수님 품으로" 새누리교회 'Come Home' EM 집회

11월 21일(토) 오후 5시
남가주 새누리교회

남가주 새누리교회(담임 박승건 목사)가 오는 11월 21일(토) 오후 5시-7시까지, 교회를 떠났거나 신앙에 관심을 가진 영어권 청년들을 초청해 'Come Home'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새누리교회의 영어권 사역인 오이코스 LA(Oikos LA)가 주관하며,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반드시 신앙에 대한 거부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대학 진학과 취업, 새로운 환경과 바쁜 일상 속에서 교회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갈 계기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집회는 찬양과 간증, 복음 메시지 순으로 진행된다. 존 리 EM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제임스 민 청년부 목사가 진행을 맡는다.

특히 이번 집회는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집회 후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인앤아웃 햄버거가 제공되며, 아이패드와 에어팟, 인앤아웃 상품권 및 헬스클럽 1년 회원권 등의 경품 행사도 진행된다.

행사는 남가주 새누리교회(964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5)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 : comehomela.org/

굿네이버스 USA, 'Good Light' 성탄 캠페인

굿네이버스 USA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주 한인 교회를 대상으로 'Good Light 성탄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성탄의 빛을, 이웃의 삶으로'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아프리카 이웃에게 태양광 랜턴인 솔라 라이트를 전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참여 교회와 가정, 소그룹은 굿네이버스 USA가 제공하는 키트와 조립 안내를 활용해 솔라 라이트를 완성한 뒤 굿네이버스로 반납하면 된다. 완성된 제품은 굿네이버스를 통해 잠비아 등 지원 지역에 전달된다.

전기 접근의 격차는 아동의 일상과 배움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제기구가 공동 발간한 '2025 에너지 진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약 7억 3천만 명이 전기를 이용하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약 85%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했다.



솔라 라이트는 해가 진 뒤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조명을 제공하고, 야간 생활과 이동을 돕는다. 또한 참여자들이 에너지 빈곤을 배우고 직접 키트를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지구촌 이웃의 삶을 이해하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구성됐다.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성도들도 함께할 수 있다.

키트 1개당 참여 후원금은 20달러다. 참여 규모와 일정, 키트 수령 및 반납 방법은 굿네이버스 USA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캠페인 안내 및 신청: https://kr.goodneighbors.us/goodlightcampaign/?ChannelID=CMP-207
문의: 877-499-989, info@goodneighbors.us

사랑의빛선교교회 제4대 담임목사 청빙 공고



사랑의빛선교교회는 미서부 파사데나에 위치한 33년 역사의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합동 국제총회 소속 교회(PCI)입니다.
사랑의빛선교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 춤추는 **예배 공동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훈련 공동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공동체**, 신앙의 세대 계승을 책임지는 **교육 공동체**,
사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섬김 공동체**를 꿈꾸며 온 성도가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지원자격
-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장로교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합동 국제총회(PCI)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 후 5년 이상의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목회 경험(풀타임)이 있으신 분
- 교단법 및 사회법, 윤리적으로 무흠하며 목회적 덕망과 영적 리더십을 갖추신 분

제출서류
- 지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목회 철학 포함)
- 목회 계획서
- 신학대학(원)학위 증명서
- 목사 안수 증명서
- 목회자 추천서 (2부 이상,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청빙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 최근 설교 2편 이상 (YouTube 영상 제출 시에는 링크로 첨부)

※ 지원서는 사랑의빛선교교회 청빙위원회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기타 서류는 자유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11월 29일까지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제출: LOLMC2026@gmail.com (사랑의빛선교교회 청빙위원회 이메일)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청빙 절차 종료 후 즉시 폐기됩니다.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문의: 청빙위원 선우균 장로 (213-663-4240)
  행정 최종은 목사 (415-871-1572)
- 교회 홈페이지: https://www.lolmc.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빛선교교회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USA
Tel:(626)744-9191 Fax:(626)744-0691

남가주 교협, 한 해의 마지막 사역은 '사랑의 쌀 나눔'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 목사, 이하 남가주교협)가 2026년 한 해의 마지막 사역으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추진한다.

남가주교협은 11월 7일 남가주 지역 교회들에 공문을 발송하고, '2026 사랑의 쌀 나눔 행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했다.

올해 남가주교협은 지역 교회들의 연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며 교계의 화합과 공동체적 사명을 위해 힘써 왔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교회 안의 연합을 넘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에 나선다.



아버지밥상교회에서 진행된 남가주 교협 제 11차 사랑의 쌀 나눔

남가주교협은 공문에서 "2026년 한 해 동안 교협의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귀한 섬김 덕분에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역으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사랑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2026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가주교협은 "각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귀한 후원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소망이 되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랑의 쌀 나눔은 한 해 동안 이어온 교회 연합의 정신을 지역사회 섬김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남가주교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의 삶 속에 풍성히 전해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적극적인 후원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후원은 수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CKCSC'로 기재하면 된다. 후원금은 남가주교협 사무실(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로 보내면 된다.

한편 제56대 남가주교협은 김은목 목사를 회장으로 김대준 목사(수석부회장), 최관 목사(총무), 최영하 목사(사무총장) 등이 임원으로 섬기고 있다.

문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주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전화: (213) 700-7311 / (213) 999-1923

종교개혁 509주년 GMC 서부지방 연합성회 성료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논제를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이 논제를 비텐베르크대학교회 문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터의 95개조 논제 발표를 계기로 촉발된 종교개혁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으며, 이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로 이어졌다. 이 원리들은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토대로 자리하고 있다.


서부지방 목회자들. ⓒ GMC 한미연회

종교개혁 509주년 기념주일을 앞두고 GMC 한미연회 서부지방 소속 교회들은 지난 10월 23일과 24일 라팔마 주님의축복교회(담임 이태범 목사)와 팔로스버디스 주반석교회(담임 강현중 목사)에서 연합성회를 개최했다.

첫째 날에는 중부지방 감리사인 손태원 목사(오클라호마 털사교회)가, 둘째 날에는 동북부지방 감리사인 고한승 목사(더바인교회)가 집회를 인도했다.

동남부지방 감리사인 남성원 목사(조지아 뉴난한인교회)는 Eagle Rock 새빛사랑교회(박유 목사)에서 말씀을 전했다.

서부지방 연합성회를 위해 한미연회의 미전역의 모든 지방 감리사들이 하나가 되어 집회를 인도했으며,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광야로 나왔던 한인 GMC교회 모든 성도들은 큰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GMC(글로벌감리교회)는 UMC(연합감리교회)의 동성애자 목사 안수 허용 등 성윤리 관련 정책 변화에 반대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교단을 떠난 감리교회와 성도들이 세운 교단이다. 현재 전 세계 7,000개 이상의 교회가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 한미연회는 미국 전역의 한인 감리교회들이 소속된 연회다.

서부지방에는 UMC를 떠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인교회들이 함께하고 있다. 소속 교회들은 LA를 비롯해 시애틀, 라스베이거스, 하와이 등 미 서부와 태평양 지역에 걸쳐 있다. 이윤준 기자

→1면 기사 〈UMC 탈퇴, 대형교회〉에 이어서

이번 분쟁은 교회의 통치 규정 변경과 재산권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지난 8월 UMC 호라이즌 텍사스 연회는 댈러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하이랜드파크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회는 교회가 UMC와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하이랜드파크 교회 지도부는 2022년 개정된 정관에서 UMC와 관련된 모든 언급을 삭제했다. 또한 교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교인들이 참여할 권리와 교단 소속을 결정할 권리도 제한했다고 연회는 주장했다.

이에 하이랜드파크 교회는 지난 9월 공식 답변서와 반소를 제출했다. 교회 측은 2022년 정관 개정이 텍사스주 법률에 따라 유효하며, 교회가 개정 이후에도 UMC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교단을 탈퇴한 7,50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 상황에서도 연회에 연례 재정 분담금을 계속 납부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교회는 UMC 탈퇴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교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약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은 정관 변경만을 이유로 연회 지도부가 교회 목회자와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랜드파크 교회는 10월 25~26일 교단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교회 운영위원회는 10월 26일 발표한 서한에서 총 4,775표 가운데 90.35%가 탈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교회는 서한에서 "이번 주일을 시작으로 하이랜드파크 감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며 "교회의 사명과 사역, 미래를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의 역사와 과거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몇 주 동안 교단 분리와 관련된 변화를 실행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며, 2026년 12월 1일까지 이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루이스 목사와 UMC 잔류를 선택한 약 100명의 하이랜드파크 교인들은 당분간 다른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네이션해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PRESBYTERIAN CHURCH (USA)
샌디에고
한인연합 장로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공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1 자격 요건
1) 교단 (PCUSA)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2) 정규 신학대학원 목회학 (M. Div)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안수 후 담임목사 및 부목사 5년 이상의 이민 목회 경험이 있는 분
4) 미국 시민자 및 영주권자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신 분)
5) 한어/영어 사역 가능하신 분

2 제출 서류
1) 이력서 (최근 사진 첨부)
2) 최종 학력 증명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4) 자기소개 (신앙 고백, 목회 철학, 목회 계획서, 가족 소개, 가족 사진 포함)
5) 최근 설교 2 편, 15-20분 (YouTube link, MP4, or MOV for iPhone user)과 자기 소개 영상 2분 이상
6) 추천서 2 통 (목회자, 지인 등) – 추천인의 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포함

3 제출 방법
1) 제출 기간: 2026년 11월 21일까지
모든 서류를 PDF로 이메일을 받습니다
2) 이메일: SDKUPC.PNC@gmail.com
3)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분께는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4) 부임 시기: 01/01/2027

4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청빙을 위한 용도로만 쓰이며, 청빙 절차 종료 후 즉시 폐기됩니다

샌디에고 한인연합 장로교회 | San Diego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PCUSA) | www.sdkupc.com

강신욱 M.D / 김남주 N.P / 김민성 M.D / 김영래 M.D / 김인자 M.D / 김진세 M.D / 김학준 M.D
대니얼 김 M.D / 리사 김 M.D / 박수영 M.D / 박윤석 M.D / 성동진 M.D / 손동수 M.D / 송홍우 D.O / 신예용 D.O
안우성 M.D / 양진홍 M.D / 윤은주 M.D / 이광혁 M.D / 이용태 M.D / 이익준 M.D / 이헌녕 M.D / 이현주 M.D
임대순 M.D / 임승하 M.D / 정만길 M.D / 제인 공 M.D / 조아라 M.D / 조이스 리 M.D / 찰스 김 M.D
프랭크 최 D.O / 허준 M.D / 헬렌 강 M.D / 황인용 M.D

당신의 주치의
당신의 이웃입니다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3098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성경 속 기적,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는 사건”

2026 기독교변증컨퍼런스, “기적, 오늘날에도 가능한가” 주제로 열려

청주서문교회(담임 박명룡 목사)와 기독교변증선교연구소, 변증전도연구소(대표 안환균)가 7일 충북 청주서문교회에서 ‘기적, 오늘날에도 가능한가?’를 주제로 ‘2026 기독교변증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연주의 세계관의 확산 속에서 기적의 가능성을 철학적·역사적·신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주의와 기독교 세계관의 차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기적 전승, 현대의 치유 사례,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일정으로 구성됐으며, 강영안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와 김기호 한동대학교 신앙교육원 교수, 박명룡 목사, 안환균 대표가 강연을 맡았다.



청주서문교회와 기독교변증선교연구소, 변증전도연구소가 충북 청주서문교회에서 ‘기적, 오늘날에도 가능한가?’를 주제로 ‘2026 기독교변증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는 기적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와 개별 기적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을 판단하는 문제를 구분하고, 기독교가 초자연적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봤다. 또한 기적에 대한 믿음이 과학적 탐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성경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논의됐다.

강영안 교수 ‘기적과 세계관 충돌: 자연주의 vs 기독교 세계관’

첫 번째 강연에 나선 강영안 교수(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는 ‘기적과 세계관 충돌: 자연주의 vs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 S. 루이스의 저서 『기적』을 중심으로 기적의 가능성과 자연법칙의 관계를 분석했다.

강 교수는 기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차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자연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과 자연을 창조한 초자연적 실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며, 경험 자체가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세계관이 증거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철학적 검토와 역사적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며 기적에 대한 판단에서 철학적 전제와 역사적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적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와 특정 기적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연을 넘어서는 실재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진실성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관한 증언과 증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의 차이도 설명했다. 자연주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자연 전체를 궁극적 실재로 이해하지만, 초자연주의는 자연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넘어서는 실재에 의존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어 자연적 원인을 탐구하는 과학의 방법과 자연적 원인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적 주장을 구분했다. 과학이 자연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연구 방법이지만, 자연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존재 전체에 관한 철학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 판단에 관한 루이스의 논증도 다뤘다. 인간의 사고가 뇌의 작용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과 특정한 판단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그 사고의 진리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덕 판단이 진화와 사회적 학습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근거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한 행동이나 판단이 발생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과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법칙과 기적의 관계에 대해서는 루이스가 기적을 자연법칙의 파괴가 아니라 자연 안에 새로운 원인이 개입하는 사건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어떤 현상이 기존의 자연적 조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모든 가능한 원인을 고려하더라도 발생할 수 없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적의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자연현상에 관한 연구와 증거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기적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은 통상적인 자연 과정을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가 아니”라며 자연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기적에 대한 주장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이스가 기독교의 중심 사건으로 제시한 성육신과 부활의 의미를 분석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을 기독교의 다른 기적들을 이해하는 중심 사건으로 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창조세계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강 교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과 오병이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등을 통해 성경의 기적이 하나님의 창조 및 구원 사역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개별 기적을 서로 무관한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성경의 기적을 자연법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기적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적 주장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적 체험의 유무로 신앙을 평가하기보다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호 교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기적 비교’

두 번째 강연에 나선 김기호 교수(한동대학교 신앙교육원)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기적 비교’를 주제로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의 초자연적 현상에 관한 전승을 비교하고, 각 종교의 기적 이해가 지닌 신학적·역사적 특징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기적과 신통력에 관한 이야기가 존재한다며, 초자연적 현상에 관한 주장만으로 특정 종교의 진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교의 신통력인 아비즈냐(Abhijñā), 이슬람교의 예언자적 기적인 무지자트(Mu’jizat), 힌두교에서 수행을 통해 얻는 능력을 뜻하는 싯디(Siddhi), 기독교의 기적(Miracle)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종교별 기적 전승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교 창시자의 기적관, 핵심 교리와 기적의 일관성, 사건과 기록 사이의 역사적 간격, 종교의 형성과 확산 과정에서 기적이 수행한 역할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각 종교의 기적 전승은 비범한 현상이라는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창시자의 권위, 초월적 실재에 대한 이해, 경전의 형성과 전승, 종교의 확장에서 기적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 창시자가 기적을 자신의 권위와 사명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해했는지, 기적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경계했는지에 따라 후대에 전승된 기적 이야기를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적과 해당 종교의 신관·인간관·구원론이 서로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해당 종교의 핵심 가르침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야 하며, 사건을 기록한 문헌의 작성 시기와 역사적 배경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이를 기록한 문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역사적 검증에서 고려할 요소라고 밝혔다. 다만 문헌이 이른 시기에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진실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문헌의 형성과 전승 과정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적의 역사적 개연성과 초자연적 원인에 관한 해석 역시 구분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판단과 그 원인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불교의 신통력과 힌두교의 수행 관련 기적 전승, 이슬람교의 예언자적 기적을 각 종교의 교리와 연결해 분석했다. 불교에서는 신통력에 관한 전승이 존재하지만 그 의미를 수행과 해탈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하며, 이슬람교에서는 꾸란과 하디스에 등장하는 기적 관련 기록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힌두교에서는 신적 존재와 수행자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종교적 신앙과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다니엘 최 기자

[다음호에 이어서 계속]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요, 류종길, 민종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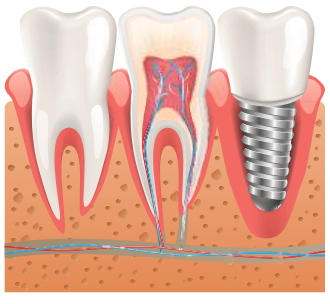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종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종, 써니김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폴 킴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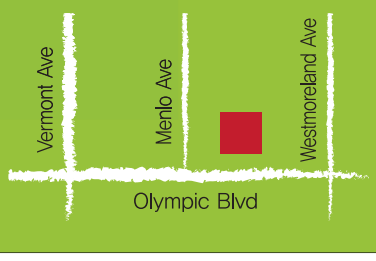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에스더 이 원장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30년 이상
한인 사회와
함께한 역사

우리 부모님께 맞는 의사,

누구일까요?



늘 **"괜찮다"**고 하시는 부모님, 하지만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은 '괜찮겠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맞는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메디칼그룹이 함께 합니다.

5,500명의
의사·의료진

18개
대형병원 네트워크

11개
보험사 네트워크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SMG
서울메디칼그룹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예람워십 '소문의 낙원' 영상 비공개 "주일 공예배 아니었다"

유튜브 채널 게시물 통해 사실관계 및 입장 밝혀

마약 · 중독 치유 위한 콘서트 형식 문화 집회
곡 관련 일부 주장, 선곡 취지와는 전혀 무관
전하고자 하는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사역 이뤄진 배경과 목적 함께 살펴봐 주길



예람워십 '소문의 낙원' 유튜브 영상 썸네일 이미지 © 영상 캡쳐

기독교 예배 사역팀인 예람워십이 논란이 된 AKMU(악뮤)의 곡 '소문의 낙원' 커버 영상을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했다.

예람워십은 10일 유튜브 공식 채널 게시물에 글을 올려 해당 영상의 배경 및 사실관계와 관련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최근 유튜브에 공개된 AKMU(악뮤)의 곡 〈소문의 낙원〉 커버 영상과 관련하여 여러 해석과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며 "먼저 예람워십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역의 본래 취지와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채, 무분별한 정보 전달, 자극적인 왜곡 및 인격 모독 등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람워십은 "해당 곡(소문의 낙원)을 노래한 자리는 일반 주일 공예배시간이 아니었다"며 "타이니하우스워십은 예람워십이 다음세대와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역의 장"이라고 했다. 이어 "'워십(Worship)'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사역의 방향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영상이 촬영된 타이니하우스워십은 청소년들이 직면한 마약과 중독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삶에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자 기획된 문화 집회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의 거짓된 소문과 절망 속에 갇힌 청소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세상 밖 빛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선교적 시도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AKMU의 곡 '소문의 낙원'과 관련하여 일부 온라인 채널에서는 '인신제사'나 '오컬트적 사탄 숭배' 등과 연결 짓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곡의 맥락과 예람워십이 해당 곡을 선택한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예람워십은 "오직 십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해 왔다"며 "전하고자 하는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높이고자 하는 이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일을 통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또 다른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다만 성도님들께서도 전해지는 이야기의 일부만으로 판단하시기보다 그 사역이 이루어진 배경과 목적을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존중으로 대화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전해주신 여러 성도님들의 염려와 의견을 소중히 듣고 있다"며 "저희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여러 오해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희를 향한 성도님들의 관심과 염려를 깊이 헤아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람워십은 "이에 여러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 끝에,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안타깝게도, 현재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참석자들의 모습이 동의 없이 캡처되어 온라인상에 동의 없이 유포 및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현장에 함께한 모든 참석자들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더 이상의 논쟁과 비난으로 이어지기보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한국 남성 4명 중 1명, 군 복무 중 기독교 세례 받았다

한국 남성 4명 중 1명은 군 복무 중 기독교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중세례를 받은 전역자 10명 중 4명은 현재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병사 절반 이상은 입대 전보다 신앙이 깊어졌다고 응답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의뢰로 실시한 '군선교 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①현재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병사 630명 ②진중세례를 받았거나 군인교회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20~40대 군필 남성 500명 ③현재 군인교회에서 시무하는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330명 ④일반교회 담임목사 500명 ⑤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남성 성도 4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 남성 4명 중 1명(24%)이 군 복무 중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는 결과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별도로 실시한 군 세례 관련 조사에서 나왔다. 해당 조사는 지난 1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남성 4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8~10월 실시한 조사에서 진중세례를 받은 전역자 가운데 현재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였다. 특히 입대 전 비기독교인이었다가 진중세례를 받은 응답자 중에서도 23%가 현재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신앙 유지가 교회 출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이보다 낮았다. 현재 기독교인인 전역자 중 출석교회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68%였으며, 출석교회가 없다는 응답은 32%였다.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가 3명 중 1명꼴인 셈이다.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병사들의 신앙 변화도 조사했다. 입대 전부터 기독교인이었던 병사 중 52%는 입대 전보다 현재 신앙이 깊어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35%, 약해졌다는 응답은 13%였다. 목데연은 군대라는 새로운 집단에 편입된 병사들이 고난의 환경을 마주하면서 입대 전보다 신앙이 깊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군인교회 출석 병사들의 신앙 수준은 한국교회 20대 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앙 수준을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상위 3~4단계에 해당하는 비율은 군인교회 출석 병사가 49%로, 한국교회 20대 성도(37%)보다 12%p 높았다.

병사들의 군인교회 출석 이유는 입대 전 신앙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전체 출석 병사 중 69%는 '신앙 유지와 성장'을 출석 이유로 꼽았다. 반면 입대 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병사들은 '군생활의 위로'(36%)와 '종교 마일리지 등 혜택'(32%)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군인교회의 재정 상황을 조사한 결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40%였다. 특히 군선교사가 시무하는 교회는 53%가 재정 부족을 호소해 군종목사가 시무하는 교회(26%)보다 그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군인교회 목회자 27%는 군선교사역 중단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역 중단을 고민한 이유는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군종목사는 과도한 업무 부담(42%)과 사역의 불연속성(40%)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군선교사는 사역 지원 부족(42%)과 경제적 어려움(31%)을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로 선택했다.

전역 후 신앙을 이어가기 위한 지역교회와의 연계 필요성도 확인됐다. 군인교회에 출석했던 전역자들은 교회 정착에 필요한 요소로 '헌신 요구 전 적응 시간 제공'(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또래 청년과의 교제'(20%), '따뜻한 환영'(19%) 순이었다.

김진영 기자



美 웨스트버지니아주 대법원, UMC 탈퇴 추진 33개 교회 소송 제동



지난 2019년 2월 24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UMC 특별총회 모습. ⓒUMC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대법원이 연합감리교회(UMC)를 탈퇴하려는 33개 교회가 제기한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분쟁이 교단 내부의 종교적 사안에 해당하므로 일반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4일 '웨스트버지니아 연회 연합감리교회 신탁관리위원회 외 대 머서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 마크 윌스 및 매디슨 연합감리교회 신탁관리위원회 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찰스 S. 트럼프 4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하급심이 해당 분쟁을 교회 내부의 종교적 사안으로 판단한 것은 옳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법관은 "이번 소송의 주장은 연회가 교회의 통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한 방식과 지역 교회들의 교단 탈퇴 과정에서 취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해당 주장은 종교적 사안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제한하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 연회 연합감리교회 신탁관리위원회가 요청한 금지명령(writ of prohibition)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머서 카운티 순회법원은 33개 교회가 제기한 소송을 다시 심리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법관은 또한 "세속 법원은 종교 교리, 교회 규율, 내부 통치, 교회 구성원이나 지도자의 자격 및 행위, 교회 자체의 종교적 권한에 속하는 교회법 문제를 해석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감리교회는 수십 년간 동성 간 결합 축복과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 안수를 허용하기 위해 교단 헌법에 해당하는 '장정'을 개정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총회에서 장정 개정안은 여러 차례 부결됐지만, 교단 내 진보 성향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존 규정을 따르거나 시행하기를 거부했다.

2019년 특별총회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논쟁 속에서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조치가 장정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교회를 중심으로 7,600개 이상의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도 24개 교회가 이 절차를 통해 교단을 떠났다.

그러나 2024년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장정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추가적인 탈퇴 움직임이 이어졌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33개 교회는 교단 탈퇴를 추진했으나, 연회 측과 교회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이들 교회는 2024년 소송을 제기하며, 총회가 규정을 변경한 이후 연회 측이 교회 건물을 포함한 재산을 보유한 채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독일 남성 콘퍼런스 '굳건히 서라'



독일 바트간더스하임의 글라우벤스첸트룸에서 열린 연례 남성 신앙 콘퍼런스ⓒScreenshot: Glaubenszentrum/YouTube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독일 니더작센주 바트간더스하임의 글라우벤스첸트룸(Glaubenszentrum·신앙센터)에서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연례 남성 신앙 콘퍼런스에 1,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11월 6일 보도했다. 독일 기독교 매체 C-호이테(C-Heute)에 따르면 미국의 베일리스 콘리 목사와 아들 해리슨 콘리가 강연을 맡아 신앙과 가정, 일터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올해 주제는 '굳건히 서라'는 뜻의 독일어 '슈탄트하프트(Standhaft)'였다. 전체 강연과 오후 교육에 이어 가정과 독일 정부를 위한 기도, 하노버 거리 전도가 진행됐다. 바트간더스하임 시장도 행사장을 찾아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

1975년 설립된 글라우벤스첸트룸은 교단을 초월해 운영하는 기독교 교육기관이다. 독일 복음주의 통신사 IDEA에 따르면 이곳은 성경학교와 1,000석 규모의 집회 시설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3,2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1~3년 과정을 마친 이들은 대부분 독일의 독립 복음주의 교회인 자유교회에서 자원봉사자나 사역자로 섬기거나 선교 활동에 나섰다.

베일리스 콘리 목사는 아내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앨러미토스에 코튼우드교회를 세웠다. 독일어권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베일리스 콘리와 함께 찾는 답'을 통해 알려졌다. 콘리 부자는 이번 강연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든든한 토대로 삼으라고 권면했다.

◈ 결혼과 아버지 역할부터 직업과 소명까지

오후 교육에서는 전도와 결혼생활, 아버지의 역할, 사업, 일상과 직업적 소명 등을 다뤘다. 글라우벤스첸트룸의 출판·편집을 맡은 아힘 긴스베르크는 지역신문 '간더스하이머 크라이스블라트'가 인용한 행사 보고서에서 "남성들은 신앙과 가정, 일터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굳건히 서고 그 태도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심화 세미나 두 편을 새로 마련했다. '기관총 설교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미국인 샘 칠더스는 동아프리카에서 내전에 휘말린 아동들을 돕는 활동을 소개했다. 심장 전문의인 헤닝 슈테엔 교수는 인간의 심장을 과학과 신앙의 관점에서 살폈다.

참석자들은 니더작센주 주도인 하노버에서 거리 전도에도 참여했다. 주최 측은 전도 현장에서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C-호이테에 전했다.

다니엘 최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샘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리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리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1부: 8:30 am
주일예배 2부: 11:00 am
교육부서: 11:00 am
주일 3부: 2:00 pm(영어권)
새벽예배: 화-토(6:00 am)
수요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은혜로 걸어온 50년, 비전으로 걸어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 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주일 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500-9791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이우호** 담임목사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림학춘**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최원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일부다처제 논란과 성경의 결혼관


로빈 슈마허(Robin Schumacher)ⓒ기독일보 DB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로빈 슈마허의 기고글인 "아내를 둘 이상 두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라"(Show of hands: Who wants more than 1 wife?)을 11월 9일(현지시각) 게재했다.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는 슈마허는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많은 책을 냈고 미국 내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며칠 전, 필자는 짐짓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농담을 건넸다. "여보, 오하이오주의 어느 목사가 3년 동안 두 아내와 살아왔대. 남자가 아내를 한 명만 두는 게 오히려 성경에 어긋난다고 하더라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2009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아내 리디아(Lydia)와 함께 라이프웍스 교회(Life-Works Church)를 세운 이스라엘 포드(Israel Ford) 목사다. 그는 최근 교인들 앞에서 지난 몇 년간 두 아내와 함께 살아왔다고 밝히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다고 주장했다.

필자가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자 잠시 서늘한 침묵이 흘렀다. 결혼 생활 27년 차인 필자에게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되물었다. "당신도 아내를 한 명 더 두고 싶어?" 정답이 하나뿐인 질문이었다. 필자는 황급히 손사래를 친 뒤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다.

농담은 여기까지다. 성경에 일부다처제가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두 아내를 둔 인물은 라멕이다. 그는 두 아내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자랑하듯 말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하갈이 있었고,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았다. 다윗도 여러 아내를 두었다.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에 달했다.

그렇다면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여러 아내를 두었다는 사실이 포드 목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구약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어떤 행동을 기록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승인하시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성경에는 성폭력과 살인 같은 악행도 기록돼 있다. 그렇다고 성경이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의 행동이라고 해서 모두 본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의 출발점으로 제시한다. 신명기 17장 17절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한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 경고가 무엇을 뜻하는지 보여준다. 열왕기상은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고 기록한다(열왕기상 11:4).

예수께서도 결혼을 가르치실 때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셨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분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며, 결혼으로 맺어진 두 사람은 이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9:4-6; 마가복음 10:6-9).

신약성경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으로 '한 아내의 남편'을 제시한다(디모데전서 3:2; 디도서 1:6).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권면했다(고린도전서 7:2-4). 이 본문들이 그리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신실함을 지키는 관계다.

구약의 보호 규정은 일부다처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포드 목사가 근거로 내세운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0절이다. 이 구절은 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에 있던 여성의 음식과 의복, 부부로서의 권리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포드 목사는 율법이 다른 아내를 맞는 상황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다처제를 승인하셨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직접 다루는 것은 남자가 아내를 더 맞을 권리가 아니라,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의 권리다. 이미 존재하던 관행을 규율하고 그 안에서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조항을, 그 관행 자체가 바람직하다는 선언으로 읽을 수는 없다.

구약 율법을 해석할 때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가르침과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와 사회생활을 규율하기 위해 주어진 조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규정이 어떤 상황을 다룬다고 해서, 그 상황 자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차이를 보여준다. 신명기 24장 1-4절은 이혼 증서가 오가는 상황을 전제로 그에 따른 문제를 다룬다.

바리새인들이 이 규정을 들어 묻자 예수께서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마태복음 19:8)고 답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던 일을 다룬 규정과 하나님께서 처음에 뜻하신 결혼을 구분하셨다.

출애굽기 21장 10절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그 조항은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여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보장한다. 결혼이 본래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다면, 필자는 예수께서 인용하신 창세기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번 논란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과 그 구절을 문맥에 맞게 읽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일인지 보여준다. 성경에 어떤 관행이 기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부를 수는 없다. 아내를 몇 명까지 둘 수 있는지 묻기 전에, 한 몸을 이룬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신실함을 약속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신미셸 기자

엔비디아 주주들 젠슨 황 상대 집단소송 제기

엔비디아 주주들이 회사와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은 엔비디아가 황 CEO의 사적 관계를 둘러싼 의혹과 이에 따른 사업상 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아직 이 사건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도록 승인하지 않았다.

주주 측을 대리하는 로젠 법률사무소는 엔비디아가 황 CEO와 앨리스 황의 불륜 관계 의혹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에 따른 국가안보 관련 위험이 회사의 평판과 사업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이를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게 원고 측 입장이다.

앨리스 황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전직 임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미국 당국이 앨리스 황을 중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황 CEO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배우자에게 불충실했다고 인정했으나, 상대방이나 구체적인 관계는 밝히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소송 제기 하루 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즉각 답하지 않았다. 9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4.3% 하락 마감했고 시가총액은 약 1,900억 달러 줄었다. 주주 측은 정규장 마감 5분 뒤 소송을 제기했다.

홍은혜 기자

핍박받는 나이지리아 교회의 눈물 "일회성 기도를 넘어 일상의 연대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브래드 브랜던의 기고글인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박해, 1년에 하루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Nigeria's Christian persecution need more than one day of prayer a year)를 11월 8일 게재했다.



브래드 브랜던, ⓒlinkedin.com

브랜드 브랜던은 어크로스 나이지리아의 설립자이자 대표다. 그는 2018년부터 해외 선교 현장에서 활발히 사역해 왔으며, 주로 나이지리아 북부와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처럼 위험이 크고 박해가 심한 지역에서 섬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매년 11월이면 세계 교회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 이날은 평소 잊고 지내던 이들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다. 그러나 기도의 날이 지나도 그들이 겪는 폭력과 상실은 끝나지 않는다.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 오픈도어즈(Open Doors)의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해당 조사 기간 전 세계에서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은 기독교인은 4,849명이었다. 이 가운데 3,490명, 전체의 70% 이상이 나이지리아에서 희생됐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필자에게 이 수치는 얼굴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필자가 함께하는 '어크로스 나이지리아'(Across Nigeria) 사역팀은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폭력의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돕고 있다. 2026년 들어 지금까지 1만 5,000명이 넘는 이들에게 도움을 전했다. 그러나 우리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 돌아온 이들 가운데 약 500명이 박해로 목숨을 잃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상실이다.

기도의 날이 지나도 박해는 끝나지 않는다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한 뒤, 많은 성도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성도들에게 박해는 해마다 한 번 떠올리는 일이 아니다. 집을 떠나야 할지, 가족이 무사히 돌아올지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실이다.

필자는 수년 동안 나이지리아의 위험 지역에서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며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들과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폭력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가정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주민들의 슬픔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또다시 교회가 습격당하고 마을 주민들이 피란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오픈도어즈는 같은 조사 기간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2,293명이 납치됐다고 집계했다. 폭력이 이전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으로 번지면서, 그동안 공격을 겪지 않았던 가정들도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2025년 6월에는 베누에(Benue)주의 기독교 농촌 마을 옐와타(Yelwata)가 습격을 당했다. 오픈도어즈는 이 공격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주민 258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그 숫자 뒤에는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꾸려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이지리아의 폭력을 한 가지 원인이나 한 집단의 소행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극단주의 조직이 종교적 갈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공격에는 풀라니(Fulani)계 무장 세력이 가담했다. 실제로 공격을 저지른 이들을 가려내고 책임을 묻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무장 세력의 범죄를 풀라니인 전체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풀라니 공동체 역시 종교적·정치적으로 하나의 집단이 아니며, 그들 가운데에도 극단주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있다.

어크로스 나이지리아는 풀라니인들이 사는 1,161개 마을 공동체와 꾸준히 관계를 맺어 왔다. 필자는 폭력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일과, 민족 전체를 가해자로 몰지 않고 이웃으로 만나 신뢰를 쌓는 일이 함께 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오래 지속될 평화를 모색할 수 있다.

기도는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는가

히브리서는 "너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히브리서 13:3)고 권면한다. 멀리 있는 사람의 고통을 잠시 안타까워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처럼 기억하라는 말씀이다.

필자는 오늘도 성도들의 안전과 유가족의 위로, 목회자들이 사역을 이어갈 용기와 피란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위해 기도한다. 폭력으로 갈라진 마을에 정의가 세워지고 평화의 길이 열리기를 구한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무릎에서 일어선 뒤 무엇을 할지에도 영향을 주어야 한다.

필자는 미국 일정을 마치고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는 대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격이 일어난 지역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그곳에는 폭력을 겪고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현재 어크로스 나이지리아의 피란민 보호시설에는 폭력으로 집을 잃은 기독교인 300여 명이 머물고 있다.

사역팀은 남편을 잃은 여성 572명도 돌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신앙을 이유로 벌어진 폭력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 사역팀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용 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다.

박해받는 성도들과 함께 선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일이다. 습격은 몇 시간 만에 끝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삶의 터전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오랫동안 남는다. 뉴스에서 사건이 사라진 뒤에도 생존자들을 돌보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이지리아에 직접 갈 수는 없다. 그러나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현지 사역을 후원할 수는 있다. 뉴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뒤에도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기억할 수 있다.

11월의 기도일은 그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때다. 필자는 이날의 기도가 그다음 주와 그다음 달에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기도 일정이 끝났다고 해서 피란민이 돌아갈 집이 생기거나, 남편을 잃은 여성이 홀로 감당하던 양육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돌볼 교회의 책임도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만난 성도들의 눈물 어린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려 애쓰던 가족들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들의 모습도 잊을 수 없다. 필자가 위험 속에서도 이 사역을 이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다. 세계 교회가 나이지리아의 형제자매들을 잊지 않고, 기도와 돌봄으로 오래도록 그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마지막주) 오후 11:00 / 새벽예배 오전 5:20 (화-금) 오전 6:00 (토)
박종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e.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r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10 / 3부예배 오전 12:00 / 금요예배 오후7:30 /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 1부 8:00 AM / 주일 2부 9:30 AM (각 교육부 예배) / 주일 3부 11:20 AM (각 교육부 예배)
수요경배와찬양 (수) 7:30 PM / 새벽예배 (월-금) 5:30 AM (토) 6:00 AM
한어청년부 1:30 PM / 영어대학부 2:00 PM
EM(dscp) 1부 9:30 PM / 2부 11:00 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 유년부 (K-2) 오전 10:30 / 초등부(3-5)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 중보기도 (Intercosssory prayer) 오전 9:4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 유아, 유치부 오전 11:00 / 초.중.고등부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이종천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사랑으로 하나되고 은혜로 세워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213) 999-9298 www.nachimban.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 주일 2부 오후12:00 /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2:30 /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 주일2부예배 오전11:00 / 유아유치부 오전11:00 /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8:00 / 2부 10:30 /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 주일 2부 9:30AM / 주일 3부 11:15AM /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 수요기도회 7:30PM /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어노인팀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 EM예배 (2부)오전 11:00 /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 주일 EM예배 오후 12:30 /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m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 새벽기도 월-금오전 5:30 / 토 오전 6:00
이충환 담임목사
www.icccla.org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 EM예배 오전11:00 / 수요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 수요예배 저녁 7:30 /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 EM예배 오전11:00 / 수요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E. lvkcchurch@gmail.com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 주일 2부 예배 1:30 PM / 수요예배 7:00 PM /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 주일학교 오전 11시 /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 금요예배 저녁 7시 /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rkpc.net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30 / 주일학교 오전 11:30 / 중고등부 오전 11:30
청년부 주일 오전 1:30 / 수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
홍경헌 담임목사
헨더슨주사랑장로교회
2 S. Pecos Rd, Henderson, NV 89074
T. (702)304-0324 / http://hendersonk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배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분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 마음이 편해지는 장례플랜
장례플렌 화장, 매장
Worldwide FAMILY INC.
① 물가상승 대비 장례비용 고정
② 사망시 속한 장례 절차 진행
③ 원하는 화장 또는 매장방식 설정
④ 부담없는 장례요금 할부 계획
⑤ 만성질환, 정부 혜택 수혜자도 가입
이한주 장례 전문상담사 CA Lic.#0K41136 213.321.878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그레이스미션대학 30주년 후원의 날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가 개교 3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14일(토)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0년간 학교의 사역을 돌아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함께해 온 후원자와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교회와 이웃, 선교지에 더욱 선한 공동체를 세워 가기 위한 GMU의 비전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후 6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되는 1부에서는 환영 인사와 기도, 식사가 마련되며, 오후 6시 5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는 2부에서는 후원 영상 상영과 특송, 비전 셰어링, 파트너십 개발, 격려 및 기도 순서가 이어진다.

행사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후원 QR코드를 통해 후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소는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에 위치한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이다.



자세한 문의는 학교 웹사이트(www.gm.edu), 이메일(partner@gm.edu) 또는 전화(714-525-0088)로 하면 된다.

남가주 샬롬교회, 베델교회 이충경 목사 청빙 결정

남가주 샬롬교회(김준식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청빙위원들의 수고 가운데 후임 담임목사 청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회 주보에 따르면, 샬롬교회는 지난 11월 1일 주일예배 후 열린 '제2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최종 후보인 이충경 목사(베델교회 부목사·49세)를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이 목사는 이날 주일예배에서 설교했으며, 내년 1월 담임목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이충경 목사.

이 목사는 인제대 경영학과와 총신대 신학과를 거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총신대 일반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공부했다.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목회학박사(D.Min.) 과정에 재학 중이다.

람원교회(예장 합동), 온누리교회(예장 통합·대학 및 청년 연합), 사랑의교회(예장 합동·대학부), 우광교회(예장 합동·담임목사)에서 시무했으며, 현재 얼바인 베델교회에서 목장, 제자훈련, 기도사역, 기획, 행정, 선교를 총괄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아내 조현지 사모사이에 2녀 1남을 두고 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


쉼, 마음상담센터 박유정 대표.

이민 생활의 무게는 몸보다 마음에 먼저 쌓인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가족과의 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고민들. 그러나 막상 상담을 받으려 하면 높은 비용에 걱정이 앞선다.

뉴저지에 본부를 둔 비영리 온라인 무료상담센터 '쉼, 마음상담센터'(대표 박유정)가 전 세계 한인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이 센터는 이름 그대로, 지친 마음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상담진의 규모와 전문성이다. 한국 임상심리사 자격과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기독교상담사 자격을 갖춘 상담사 40명이 참여하고 있다. 상담사들이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서 편한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미국 전역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온라인 화상(Zoom)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이 무료다. 개인 상담을 비롯해 부부상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원하는 경우 신앙을 통합한 상담도 선택할 수 있어, 교회 안에서조차 말하기 어려웠던 고민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다.

상담사는 신청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상담사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아는 사람을 마주칠 걱정 없이 상담에 임할 수 있다.

상담 신청: www.shimccc.org
대상: 한인 누구나
방식: 온라인, 전 과정 무료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 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목동 칼럼

계약과 언약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신앙적 확신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몸담았던 교단을 떠나 광야로 나온 지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5일 마지막 주일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예배 처소도 정해지지 않은 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머물 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곳마저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실로 2025', '실로 2026'이라는 기도 제목을 품고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새로운 예배 처소의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차례 작성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계약의 의미와 약속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사회는 수많은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약 5천 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미 토지와 가축 등의 거래를 점토판에 기록했습니다. 기원전 2400년경의 기록에도 거래 당사자와 대가, 증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문명의 초기부터 인류는 약속을 기록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려 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도 이러한 계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1682년 펜실베이니아에 도착한 퀘이커 신앙인 윌리엄 펜(William Penn)은 원주민 레나페(Lenape)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토지에 관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원주민 지도자들과 느릅나무 아래에서 평화와 우정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 만남의 구체적인 내용은 역사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토지 거래와 평화적 합의를 추진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펜이 세상을 떠난 뒤인 1737년, 그의 후손들과 식민지 당국은 이른바 '워킹 퍼체이스(Walking Purchase)' 사건을 통해 레나페 사람들의 막대한 토지를 부당하게 빼앗았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약속도 후대의 불성실함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계약의 가치는 체결 당시의 아름다운 약속보다 그것을 끝까지 정직하게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언약(Covenant)은 사회적 계약보다 더욱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에게 만민의 복을 약속하셨으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에게 왕조에 관한 약속을 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창조의 사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거쳐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세상의 계약이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와 권리·의무에서 출발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주권적인 은혜와 신실하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인간에게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하나님을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인애'는 히브리어 헤세드(חֶסֶד)로 자비와 변함없는 사랑,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신 후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고,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하셨고, 우리의 마음에 언약과 법을 기록하시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렘 31:33).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불성실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에 대한 신실한 순종의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의 법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지만 신실한 마음까지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법적 의무를 넘어섭니다. 코람데오(Coram Deo), 곧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자세로 정직과 사랑, 공정함과 신실함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세상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에는 정직과 책임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 나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선택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제 필자의 교회는 새로운 처소를 위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또 다른 출발을 시작합니다. 소망하기는 이러한 복된 계약의 계절에 단순히 계약서를 읽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사모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가며 이루어 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준민 칼럼

짙은 구름 아래서 기다리는 영성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은성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인생에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짙은 구름이 몰려옵니다. 질병의 구름, 관계의 아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기대했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다윗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시 13:1)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없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애통은 불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상처 입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마크 브로갑은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에서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성경적 애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애통은 아프지 않은 척하거나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애통입니다. 애통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C. S. 루이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후 기록한 《헤아려 본 슬픔》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픔이 두려움과 이토록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아무도 내게 말해 주지 않았다." 깊은 슬픔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익숙했던 세상이 낯설어지고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먹구름을 뚫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온 하늘이 어둡고 비가 내리지만, 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구름이 짙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구름 너머에 여전히 태양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백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통해 빚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기다렸고, 요셉은 꿈을 받고 기다렸으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웬은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을 마음에 약속을 품고 깨어 있는 기다림으로 설명했습니다. 기다림에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고,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가장 깊은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열매를 빨리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뿌리를 깊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애 3:22-23).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름을 걷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구름을 즉시 걷어 주시는 대신 구름 아래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짙은 구름 아래를 지나고 계십니까? 울어도 좋습니다. 질문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부르짖어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202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Good Neighbors USA

Good Light Campaign



성탄의 빛을, 이웃의 삶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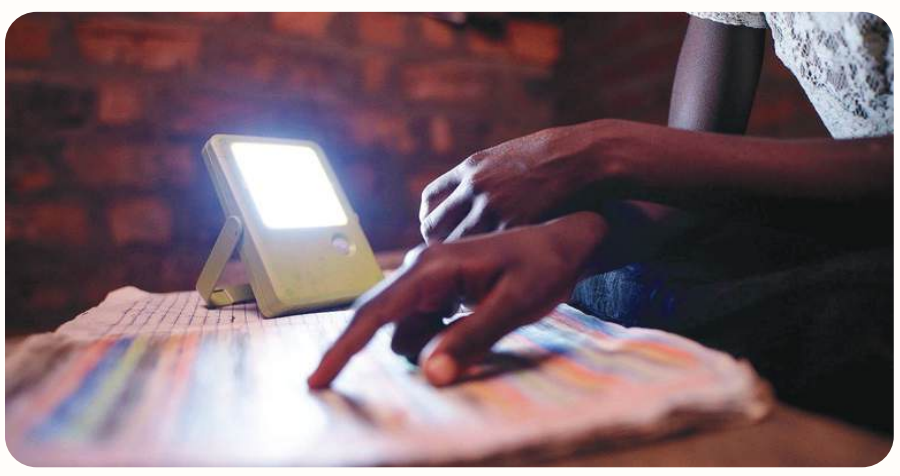
어둠 속 세상에 생명과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에게 전해졌듯, 이제 우리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이웃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빛이 필요한 이웃에게 굿라이트를 선물해 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 마태복음 5:14

One Light, Three Rights

전기가 없는 세계 인구의 약 80%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굿라이트 하나가 아이의 밤을 바꿉니다.



교육권
해가 진 뒤에도 책을 펴고 숙제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권
연기 나는 등유 램프나 촛불 대신 깨끗한 빛으로,
아이들의 배움과 건강, 안전한 일상을 밝힙니다.

안전권
어두운 밤길이 덜 두렵습니다. 빛은 아이들을 지키는
작은 울타리입니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조립 키트와 설명 자료, 영상, 전달 보고까지 교회로 보내드립니다.

01 말씀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과 빛이 필요한 이유를 배웁니다.

02 함께 굿라이트를 만들어요.
아이들이 직접 조립하며 이웃에게 전할 선물을 준비합니다.

0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라이트를 받을 친구들의 일상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04 전해진 빛의 소식을 나눠요.
전달 소식으로 우리 교회의 나눔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문의: 877-499-9898 | info@goodneighbors.us

QR로 키트 신청

[사설] 美 공화당 패인, 낙태 등 성경적 가치 소홀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연방 의회 모두를 손에 넣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중간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고 평가하면서 민주당의 큰 격차 승리를 이변이라고 했다.

공화당 참패의 드러난 원인은 고물가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가계에 안긴 고물가가 표심으로 작용한 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급등한 것이 패인임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직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패한 원인이 이란 전쟁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쟁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쟁을 일으킨 게 잘못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지 못한 게 잘못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의회를 장악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끝내지 못한 이란 전쟁을 어떻게든 확실히 마무리 짓고 싶겠지만 관련 국방비 증액과 행정부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경우 곤경에 빠질 수 있다.

거의 모든 전문가와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선거 참패의 원인을 경제와 고물가, 이란 전쟁 등에서 찾고 있지만, 복음주의 보수단체는 이와는 다른 시각의 해석을 내놨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승리한 이번 선거 결과를 도덕적·가치적 문제에 안주한 공화당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 회장은 CP에 기고한 글에서 공화당의 낙태 관련 정책 변화를 특히 문제 삼았다. 2016년 공화당 강령에서 낙태는 35차례 언급됐지만, 2024년 강령에서는 한 차례만 등장할 정도로 약화된 걸 지적한 거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건 낙태 증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점점 후퇴해 성경적 가치에서 멀어진 게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24년 강령은 낙태 정책을 주 정부의 결정에 맡기는 방향을 취했으며, 이전 강령에 담겼던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연방 차원의 규제 약속도 상당 부분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스스로를 기독교 국가라고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정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구트마허 연구소가 2026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미국 의료진이 제공한 낙태는 약 112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약 93만 건보다 21% 증가한 수치로 공화당이 집권당으로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

미국에서 공화당은 오랫동안 생명의 존엄성과 결혼, 가정의 가치를 옹호해 온 정당으로 그 위상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기독교인 유권자들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마저 흔들리고 있음을 이번 선거 결과가 여실히 보여줬다.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2년을 성경적 가치관의 회복에 둬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라김 칼럼

미국 중간선거와 무슬림 정치 세력의 부상, 교회가 주목할 것은



새라 김 대표
TVNEXT.org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롬 12:2상)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통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분별하며,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믿음의 행동(Action)을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통해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칭찬이실까요? 경고이실까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발견된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 이슈들을 먼저 세 가지로 나누어 앞으로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봐야 할 것은 미국 시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정책과 정치 영역에 들어온 무슬림들의 숫자와 그들의 탄탄한 영향력, 그리고 짙은 영적 어두움입니다. 미국 역사상 압도적인 숫자로 2026년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무슬림 당선자들 2025년 CAIR와 무슬림 협력 단체들의 보고서를 종합하면, 2025년 선거 기간 동안 뉴욕, 버지니아, 미시간, 메릴랜드, 오하이오 등 여러 주에서 치러진 다양한 지방·시·주 차원의 선거에 출마한 무슬림 후보 76명 중 38명이 당선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중 조란 K. 맘다니가 뉴욕시 시장으로 선출되어 뉴욕시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이자 사회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잘라 하슈미가 버지니아주 부지사로 당선되어 미국 역사상 주 차원의 행정직에 선출된 최초의 무슬림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중간선거의 전체적인 당선자 숫자는 2025년의 3배 이상입니다.

미국 최대의 무슬림 시민권리 및 옹호 단체인 CAIR는 'CAIR 및 CAIR Action 프로젝트'를 통해 '중간선거에서 모든 개표가 완료되면 100명 이상의 미국 무슬림이 당선되거나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는데, 2026년 중간선거 결과는 그들의 전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CAIR와 미국 내 무슬림 정치 세력의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CAIR Action이 2026년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11월 5일 직접 발표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선거 주기 동안 지방·주·연방 공직에 출마한 미국 무슬림 후보들은 총 168명이며, 21개 주에 걸쳐 미 연방·주·지방 차원에서 미국 무슬림 후보들의 최소 97건의 당선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8건은 주의회 의원 당선이다."

CAIR와 CAIR Action이란?

CAIR 공식 발표에 따르면, 무슬림 유권자를 동원하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엠게이지 액션(Emgage Action)을 통해 현직 의원들의 활동 실적과 언론 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무슬림 언론사도 운영하는 영향력 있는 단체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무슬림 정치인들의 숫자는? 총 113명 이상

● 연방 하원 당선자(Congressional Winners): 총 15명

네바다, 인디애나, 텍사스, 워싱턴, 뉴저지, 뉴욕: 각 주에서 1명씩(총 6명)

조지아, 미시간, 미네소타: 각 주에서 2명씩(총 6명) 캘리포니아: 3명

주목할 점: 미시간주에서는 미국 최초의 무슬림 상원의원이 된 아브둘 엘 세이드(Abdul El-Sayed)가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아담 하마위(Adam Hamawy)가 뉴저지주를 대표해 의회에 진출한 최초의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 주 전체 및 입법부 당선자(Statewide and Legislative Winners): 총 39명

미네소타,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뉴햄프셔, 오리건, 텍사스: 7개 주에서 1명씩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주: 각 2명씩

조지아, 일리노이, 코네티컷, 뉴욕, 펜실베이니아: 각 3명씩

메릴랜드, 미시간: 각 4명씩, 미네소타: 총 5명

● 사법부 당선자(Judicial Winners): 총 10명 미네소타와 워싱턴: 각 1명씩(총 2명)

노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 각 2명씩(총 4명) 미시간: 4명

● 카운티 및 시 당선자(County and Municipal Winners): 총 19명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버지니아: 각 1명씩(총 3명) 캘리포니아: 3명

뉴저지와 텍사스: 각 4명씩(총 8명)

미시간: 5명

● 교육 및 교육위원회 당선자(Education and School Board Winners): 총 30명

인디애나폴리스,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각 1명씩(총 3명)

캘리포니아: 4명

뉴저지: 10명

미시간: 13명

주목할 점: 텍사스주 라운드록 교육구(Round Rock ISD) 교육위원회 3번 선거구(Place 3) 당선자는 18세의 아얀 몰레디나(Ayaan Moledina)라는 이름을 가진 파키스탄계 이민자 부부의 2세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반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기도 대상입니다.

● 여전히 개표 중인 가운데 당선이 유력한 무슬림 후보자들: 2명

메릴랜드주와 오리건주에서 각 1명씩

CAIR의 발표처럼,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미국 상원에 최초의 무슬림 의원이 진출하게 되고, 뉴저지주에서는 최초의 무슬림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하며, 뉴욕주 의회에는 최초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의원이 입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휴스턴의 한 치과의사가 텍사스주와 미국 남부 지역 최초의 무슬림 카운티 행정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6년에 무슬림의 86%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반면, 올해 투표한 개신교도나 기타 기독교인의 비율은 17%였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CAIR Action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이번 선거 운동 기간 내내 후보자들과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겨냥한 반무슬림 비방에 대한 강력한 일침이다. 미시간, 뉴저지, 뉴욕 및 전국 각지의 유권자들은 무슬림 후보자들의 리더십과 비전, 그리고 공공 봉사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우리는 새로 선출되거나 재선된 모든 무슬림 공직자들이 자신의 (이슬람) 신앙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봉사하고, 모든 이의 시민권을 수호하며, 국내외에서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의 무슬림 신앙과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에 계속….

오늘 기사에 자세한 데이터와 목록은 Tvnext.org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의유엔 대회 KAC 7명 입상

제34회 BruinMUN 대회, 그레이스 송, 올리비아 김 우수상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 모의유엔(이하 KAC MUN) 프로그램 학생들이 지난 11월 7일과 8일, UCLA에서 열린 제34회 BruinMUN 대회에서 총 5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전역에서 약 2,0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KAC MUN 학생 32명이 출전해 국제 현안에 대한 이해와 외교적 소통 능력, 리더십 및 협상 역량을 발휘했다.

이번 대회에 처음 출전한 그레이스 송(Grace Song) 학생과 올리비아 김(Olivia Kim) 학생은 유네스코(UNESCO) 위원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8년 LA 올림픽을 주제로 한 위원회의 헬레나 이(Helena Lee) 학생과 인플루엔자 팬데믹(Influenza Pandemic)을 주제로 한 위원회의 아네트 안(Annette Ahn) 학생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조이 싸이(Joy Tsai) 학생과 레이첼 최(Rachel Choi) 학생은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격려상(Commendation)을, 이자벨라 권(Isabella Kwon) 학생은 유엔 산림 포럼(UNFF)에서 리서치상을 수상했다.

KAC MUN을 이끄는 민디 이 선생님은 "학생들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발표하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한층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멘토십과 격려를 통해 학생들이 도전하고 배우며 사회에 기여하는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AC MUN 학생들은 지난 10월 포모나 대학에서 개최한 SageMUN 대회에서도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KAC MUN 프로그램은 내일재단, Dwight Stuart Youth Fund, SoCalGas 및 익명의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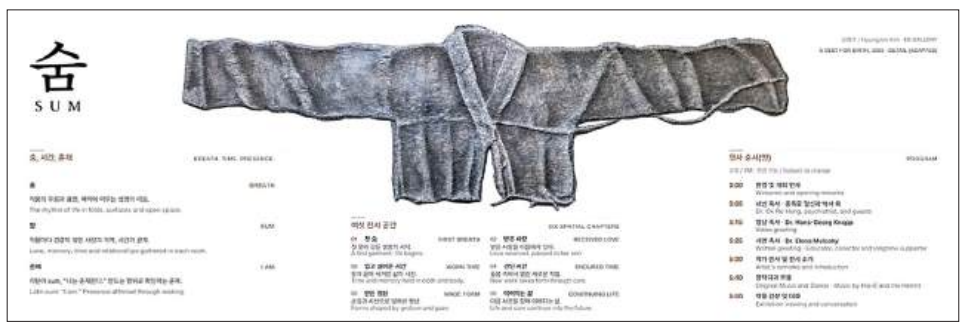
김민선 기자

KAC MUN 문의: programs@kacla.org | (213) 365-5999

주소: 3727 W. 6th ST., Suite 305 LA, CA 90020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학생들이 UCLA에서 열린 제34회 BruinMUN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 기독일보



아들의 곁을 지킨 시간, 김형주 초대전 '숨'

E.K. 갤러리에서 11월 14일(토)-28일(토)까지 김형주 작가의 개인전 '숨'이 열린다. 오프닝 세션은 14일(토)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8년 10월 아들의 사고 이후, 작가는 보거나 말하거나 삼키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아들을 24시간 곁에서 돌봤다.

최근에야 희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들의 친구는 전시를 위한 곡에, 사고 후 그가 처음 말한 '엄마'라는 그 한 마디를 담았다.

큐레이터 브라이언 정은, 이 전시의 주제 '숨'에 대해, 작가가 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이자, 아들의 생명, 그 곁을 지켜온 시간과 사랑의 합(SUM)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주 작가는 한지와 저고리의 형상에 몸의 기억과 돌봄의 시간을 담아냈다.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시카고 문화센터, 샌프란시스코 공예, 민속 미술관 등에 전시했으며,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주소: 1125 S. Crenshaw Blvd. LA CA 90019

전화: 323-272-3399

갤러리: 월-토 11시-5시 (11/15, 22,26 휴관)



뮤지컬《도산》갈라 콘서트가 샌디에고 예담교회에서 열렸다. ⓒ 시선

뮤지컬 '도산' 갈라 콘서트 성료

무대예술인그룹 시선(대표 클라라 신)의 뮤지컬 《도산》 갈라 콘서트가 11월 7일 오후 6시 샌디에고 예담교회에서 열렸다.

예담교회와 시선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연은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다.

이번 무대는 시선이 한국어로 선보이는 미국 지역 공연의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이어 온 작품을 샌디에고 관객에게 소개하고, 한인 이민의 역사를 나누는 데 뜻을 뒀다.

공연은 예담교회 이순영 담임목사의 기도로 시작됐다. 이어 시선과 뮤지컬 《도산》의 활동을 지원해 온 고(故) 김동수 이사장을 기리는 추모 영상이 상영됐다.

김 이사장은 뮤지컬 《도산》이 더 많은 관객을 만나고 다음 세대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기를 바랐던 후원자였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공연은 원작 뮤지컬의 주요 장면과 노래를 선별한 갈라 형식으로 구성됐다.

도산의 독립을 향한 결의, 청년을 교육하고 동포들을 조직하려 했던 신념, 낯선 미국 땅에서 삶을 일구었던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시선이 이번 갈라를 준비하며 강조한 것은 한국의 역사와 미주 한인 이민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었다.

공연 중에는 장면마다 관객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추모로 시작된 저녁은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오늘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자리로 이어졌다.

이번 샌디에고 갈라의 총괄 제작과 연출, 극본은 클라라 신이 맡았다. 작곡·편곡에는 Joseph K.와 신원철(Wonchul Shin)이 참여했으며, 김규린이 무대감독과 조명 디자인을 담당했다. 신원철은 사운드 디자인과 음향 엔지니어로도 참여해 공연의 음악과 소리를 뒷받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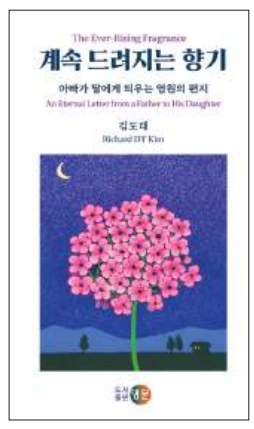
현장에서는 예담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협력이 공연 운영에 힘을 보탰다. 기술 지원을 맡은 피터 목사는 제작진과 호흡을 맞추며 무대를 지원했다.

2019년 3월 3일 《뮤지컬 도산》 초연과 함께 출범한 시선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다. 이번 샌디에고 공연을 계기로 도산의 삶과 미주 한인 역사를 미국의 더 많은 지역에 소개하는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연 및 단체 활동 문의:** seasuntag@gmail.com

떠나간 딸 향한 그리움...122편의 시에 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을 향한 아버지의 그리움과 사랑을 담은 시집 『계속 드려지는 향기』(도서출판 영문)가 출간됐다.

시집은 총 8부로 구성됐으며, '우리 딸'을 향한 122편의 편지와 시를 담았다. 책의 부제는 '아빠가 딸에게 띄우는 영원의 편지'다. 저자 김도태 목사(성문교회 담임)는 제16회 에피포도신인문학상 수상자로, 갑작스러운 딸과의 이별 이후 슬픔과 고통을 글로 써 내려가며 이 책을 완성했다.



책에는 딸과의 추억과 아쉬움, 다시 만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담은 글들이 수록됐다.

김 목사는 서언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슬픔의 고통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더 기억하고 싶은 딸을 품은 아빠의 사랑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며 "이 책을 통해 누구라도 어떤 형편에서 함께 울고 위로가 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들어가는 글을 쓴 백승철 목사는 "이 책은 친구의 가슴에서 화석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게 벽을 허무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추천사를 쓴 김혜민 작가는 "자식을 잃은 슬픔 앞에서 목사라도, 성도라도 마음껏 울어도 괜찮다"며 "슬픔의 바다에서 외롭게 노 젓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따뜻한 손짓이자 다리가 되어 줄 것"이라고 평했다. 김진영 기자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불편한 감정,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자신의 '감정'통해, 더 깊이 하나님 알아가기



그리스도인의 감정수업

엘리슨 쿡, 킴벌리 밀러
김총명 역 | 야다북스 | 352쪽

감정에 휘둘리는가?
아니면 감정과 동행하는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감정을 가장 든든한
내 편으로 바꾸라!

이 책은 분노, 두려움,
불안, 슬픔, 시기심,
죄책감 등
우리 내면의 다루기 힘든
불편한 감정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가장
든든한 내 편으로 만드는
매우 유익하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엘리스 쿡과 김벌리 밀러가 공저한 『그리스도인의 감정수업』은 감정을 단순히 조절해야 할 대상이나 신앙 성장의 방해물로 이해하던 통념에서 벗어나, 감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를 탐색하는 책이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과 심리학적 통찰을 정교하게 결합하면서, 불편한 감정이라는 인간 내면의 깊은 수위를 신앙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그 감정들을 성숙한 영적 삶을 향한 통로로 제시한다. 저자들은 두려움, 분노, 슬픔, 불안, 시기심, 욕망, 죄책감, 수치심 등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려 하는 정서들을 피상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 감정들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지를 섬세하게 탐구한다.

기독교 영성이 감정 문제를 경시하거나 단순히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도식적 접근으로 흘러가기 쉬운 현실 속에서, 이 책은 감정 자체를 하나님의 계시적 통로로 이해하려는 성숙한 접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서심리학 관점에서 볼 때, 감정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적응하며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 체계이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 가치, 두려움, 상처, 기대가 복합적으로 얽힌 신호이자 내면의 언어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심리학적 정의를 신학적으로 확장해, 감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내적 안내자이며, 하나님이 내면 깊은 곳에서 작업하시는 흔적이라고 제시한다. 이는 감정을 죄성의 부산물로만 보거나, 신앙적 성숙의 장애물로 판단하던 기존의 이원적 사고를 넘어서는 관점이다. 책 전반에서 저자들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영적 성장을 저해하며, 감정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적절히 다루는 과정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한다.

특히 이 책에서 중심적으로 제시되는 내면 돌봄의 다섯 단계-집중, 친밀, 초대, 내려놓기, 통합하기-는 영성과 정서 치유가 통합되는 심리·신학적 모델로서 주목할 만 하다.

'집중'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로, 이는 현대 심리학의 마음챙김 기법과 유사한 면이 있다. 감정은 알아차림의 순간에 비로소 그 형태를 드러내며, 감정의 진짜 내용은 회피할 때가 아니라 마주할 때 제대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단계인 '친밀'은 감정과 거리를 두지 않고 그 감정의 '정확한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다. 심리학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는 정서적 접촉과 내면 탐색에 해당하며, 감정이 표현하는 욕구와 상처, 미해결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는 곧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에서 일하시도록 공간을 여는 과정이다.

세 번째 단계인 '초대'는 감정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영적 행위이다. 이는 심리학적 기법인 재해석이나 전환과는 다르다. 단순히 감정을 분석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드러내는 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듣는 과정이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시편 기자들이 고통과 분노, 절망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영적 전통과 맞닿아 있다. 감정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한다는 행위는 곧 감정이 단순히 인간 심리의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돼야 하는 신학적 사건임을 보여준다. 마지막 단계인 '통합하기'는 감정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의미,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얻은 통찰과 감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형성된 성숙을 삶 전반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합적 자아 형성이나 정서 조절 능력의 성숙을 신학적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감정을 단순히 관리 대상이 아니라 영적 성숙의 자원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이 책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특정 감정들-특히 불편한 감정들-을 신앙적 언어로 정교하게 풀어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분노는 흔히 죄와 결부돼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지



▲ⓒ픽사베이

만, 저자들은 분노가 지켜져야 할 가치가 위협받을 때 발생하는 정당한 신호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의를 향한 열망을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분노가 자기보호 및 경계 설정과 관련된 감정이며, 부당함을 직면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과 연결된다. 두려움과 불안 역시 단순히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상실 가능성, 불확실성, 통제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리적·심리적 반응이며, 이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깊어질 수 있다는 통찰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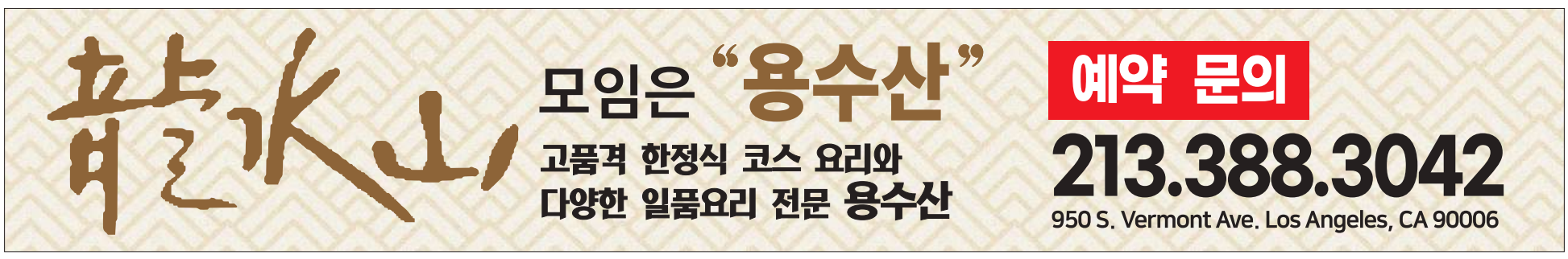
시기심과 욕망은 쉽게 외면되거나 죄책감으로 덮이기 쉬운 감정이지만, 저자들은 이러한 감정들이 오히려 인간의 '깊은 갈망'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재정렬할 수 있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신앙 공동체에서 오히려 과도하게 강조되기도 하는 감정이지만, 저자들은 건강한 죄책감과 해로운 수치심을 구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용서의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책이 감정과 영성의 통합을 개인의 내적 경험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한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감정이 개인 내부에서만 해석돼선 충분하지 않으며, 예배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나누어지고 인정될 때 비로소 성숙한 영적 삶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서성록, 한 점의 그림] 현대 미술과 신앙 사이의 '열정적 양가성'

현대 미술계의 냉소적 시선과 신앙적 확신 사이

현대 미술과 기독교의 접점
절대적 균열 후유증 앓는 중
열정적 양가성, 작가들에게
영적·심리적 탈진 초래 쉬워
사회적 실천으로 지평 확장
피조 세계 섬기는 청지기로



▲조르주 루오, 고독한 자들의 거리(미제레레 연작 중), 36.5x50.5cm, 종이 위에 아쿠아틴트, 드라이포인트, 1922. 조르주 루오는 모더니즘의 격변기 속에서 주류 미술계의 형식 실험(야수파, 표현주의)과 호흡을 같이하면서도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던 선구자이다.

오늘날 미술계는 시의성을 지닌 창의적인 작품으로 가득하지만, 일상에 깊이 스며있는 '종교적 특질'만큼은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차단된다.

미술사학자 제임스 엘킨스(James Elkins)는 『현대 미술에서 종교의 기이한 위치(On the Strange Place of Religion in Contemporary Art, Routledge, 2004)』에서 현대 미술과 종교가 맺고 있는 이 같은 단절과 긴장을 분석했다.

엘킨스가 진단하는 주류 미술계의 메커니즘은 명확하다. 미술계는 종교를 조롱하거나, 종교적 도상을 불손하게 차용한 작업(예컨대 안드레스 세라노의 『오줌 그리스도』), 혹은 신앙에 대해 깊은 회의와 혼란을 드러내는 작업은 기꺼이 수용한다.

그러나 어떠한 회의나 비틀림 없이 신앙을 고백하는 미술에 대해 쉽사리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미술계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가가 종교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재고(再考)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모호성과 자기 비판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엘킨스에 의하면 확신에 찬 신앙은 곧바로 단선적 선전물로 취급받고, 오직 의심하고 주저하는 태도만이 비평적 유효성을 얻는다.

시카고 미술대학에서 엘킨스가 만난 유학생 '김(Kim)'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뛰어난 묘사력을 지닌 감리교 신자였던 김은 어느 날 엘킨스에게 자신의 '진짜 작업'이라며 판화 한 점을 꺼내 보였다. 하단에는 두 팔을 벌려 기도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지구 위에 배치돼 있고, 상단에서는 거대한 신의 구원의 손이 어두운 우주를 뚫고 내려오는 실크스크린 작업이었다.

엘킨스는 그 작업을 보며 현대 미술 제도가 지닌 완고한 한계를 절감한다. 엘킨스는 "개인적인 작업으로는 훌륭하지만, 서구 미술계에서 전시를 하고자 한다면 이처럼 노골적으로 종교적인 작업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조언한다. 이에 김은 "내 미술 안에서는 행복하다. 왜 종교적이면서도 뛰어난 미술을 할 수는 없는가?"라고 반문한다.

엘킨스는 "모더니즘이 본래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말 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결국 엘킨스의 입장에서 김의 판화는 더 이상 동시대적 생명력을 지니지 못한, 이미 박제되어 버린 과거의 유산에 지나지 않았다.

기독교 신앙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막다른 골목에서, 엘킨스가 찾아낸 우회로는 '부정신학(Apophatic Theology)'이었다. 신이 무엇인가를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대신, 알 수 없는 부정적 용어만 남을 때까지 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증명하며 침묵으로 향하는 사유다.

엘킨스는 현대 미술의 대상 해체나 미니멀리즘의 환원적 태도가 부정신학의 구조와 깊은 친화성을 지닌다고 보았으며, 포스트모던 담론만이 현대 미술과 대화할 수 있는 적합한 통로라고 판단했다. 엘킨스의 종교미술에 대한 견해는 결국 "정직하고 회의적이지 않은 평범한 종교적 신앙을 표현하는 예술가를 위한 자리는 없다(같은 책, 47쪽)"는 단언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개신교 미술사학자 대니얼 사이델(Daniel A. Siedell)은 '열정적으로 양가적인(Passionately Ambivalent: Christians in the Art World, Christianity Today, Feb. 13, 2006)'에서 엘킨스의 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사이델은 엘킨스가 미술계의 종교적 침묵을 간파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법으로 제시한 시각이 형식주의적 규범에 갇혀 있다고 보았다.

사이델이 짚어낸 첫 번째 문제는 '부정신학 일변도의 접근'이 정통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기에 협소하다는 점이다. 기독교 미술 전통은 침묵과 배제를 다루는 부정신학 외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역사와 시공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성육신(Incarnation)'에 바탕을 둔 긍정 신학, 즉 '카타파시스(Kataphasis)'의 풍부한 조형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 성육신적 관점에서 물질(물감, 형상, 캔버스)은 신성을 가리는 장벽이 아니라 실재와 사랑을 드러내는 매개체로 작동한다.

"엘킨스는 현대 미술이 종교를 대하는 냉혹한 현실을 탁월하게 해부하지만, 정작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풍부한 자원과 성육신적 실재를 진지하게 담아내려는 크리스천 작가들의 시도에 대해서는 현대 미술계의 닫힌 편견을 그대로 반복하며 이들을 '순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하는 한계를 드러낸다(Daniel A. Siedell)."

역사적 기독교 미술의 핵심은 교리의 기계적 주입이 아니라, 피조 세계의 구체성과 존재의 비극을 정직한 조형 언어로 탐구해 온 것이었다.

아쉽게도 엘킨스는 미술계의 규칙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신앙적 고백과 수준 높은 조형적 성취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닫아버린 셈이다.

이처럼 신앙적 고백과 조형적 성취의 공존 가능성을 배제한 채 '현대의 영성과 현대 미술은 어색한 동반자'라고 결론짓는 엘킨스의 이분법에 맞서, 사이델은 기독 작가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 긴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열정적이면서도, 현대 미술계의 담론과 실천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열정적으로 양가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대 미술의 어휘와 형식 속에서 소통해야 하는 이중고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Daniel A. Siedell)."

사이델에 따르면, '열정적인 양가성'은 무원칙한 타협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동시대 미술의 조형 어휘와 비판적 시각을 습득하면서도, 미술계 특유의 냉소주의나 회의론에 매몰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교회 내부의 익숙한 도상에 안주하지 않고, 현대 미술 한복판에서 신앙의 성육신적 깊이를 물감과 형상이라는 구체적인 물질로 길어 올리는 과정을 밟는다.

현대 미술과 기독교의 접점은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의 표현을 빌리자면 '절대적 균열'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미술계 취향에 맞춰 신앙을 무균 처리하거나, 반대로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게토화된 독백을 고집하는 것으로는 이 균열을 건널 수 없다.

현대 미술계의 냉소적인 시선과 신앙적 확신 사이 경계선 위에서, 그 긴장을 회피하지 않고 물감과 캔버스로 온전히 버텨낼 때에만 비로소 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 사이델의 조언이다.

그러나 사이델이 제시한 '열정적 양가성'은 진단으로서는 날카로울지언정, 창작의 현장에 선 작가에게는 양쪽 모두에서 줄타기를 감당하는 식의 영적·심리적 탈진을 초래하기 쉽다.

작가가 미술계의 폐쇄된 제도의 인정 욕구에만 매몰될 때 마주하는 것은 무력감이다. 이는 믿음 없는 작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예술가는 주류 제도의 승인을 유일한 존재 이유로 삼는 터널 시야를 넘어, 공동체의 상처를 보듬고 삶의 구체적 자리마다 샬롬을 심어가는 '사회적 실천'으로 작업의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

제도적 균열을 봉합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피조 세계를 돌보고 섬기는 '문화적 청지기'로서의 신실한 소명이기 때문이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소외된 사모와 가정에 소망 전해” 엘피스 패밀리 10주년 감사예배

여성 목회자 및 평신도 여성 지도자들의 영적 회복과 가정 사역을 감당해 온 엘피스 패밀리(대표 박운송 목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뱅킷을 개최했다. 지난 11월 8일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후원 교회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 사모 및 성도들이 참석해 지난 10년간의 사역을 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나눴다.



엘피스 패밀리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단체사진. 맨 앞줄 가운데 파란색 자켓이 엘피스 패밀리의 대표 박운성 목사이다. ⓒ 기독일보

“광야의 하갈 돌보신 하나님, 엘피스 사역의 본질”

1부 예배는 대표 박운송 목사의 사회와 김지홍 사모의 찬양 인도로 시작됐다. 이영성 목사(로스팰리스연합감리교회)의 대표기도와 김두선 사모의 성경봉독(창세기 16:7-13)에 이어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엘피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하나님은 ‘엘피스(소망)의 하나님’이시라며, 크리스천은, 그 삶에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 대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았다”며,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신다”는 점을 두번째 소망의 이유로 제시했다.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셔서 ‘네 고통을 들었다. 네가 사래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뜻밖의 장소에 찾아오시고,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엘로이(El Roi)’,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둘을 돌보셨다며, “살피시는 하나님(엘로이)의 은혜가 지난 10년 동안 외롭고 지친 사모들을 위로해 온 엘피스 사역의 핵심이자 앞으로 계속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하갈을 찾아가셨듯, 그리스도께서 여러 소외된 여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셨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상처받고 소외된 여인들을 사랑하셨다. 하갈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만나주셨다.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만나주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

이어진 영상 격려사 순서에서는 이사장 김웅민 목사(UMC 서부지역 코디네이터)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천사처럼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사역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뉴먼 교수(전 APU 디렉터, 온누리교회 협동목사)는 빌립보서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Jesus), 타인(Others), 자신(You)의 순서로 품을 때 사역 안에 참된 기쁨(JOY)이 넘치게 된다”고 권면했다.

10년 사역 보고… 故 신혜원 사모 추모

사역보고 순서에서는 이행복 사모가 단에 올라 2026년 진행된 이집트 힐링캠프와 수단 난민학교 사역, 정기 중보기도 모임을 비롯해 지난 10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영상과 함께 보고했다. 이어 김지홍 사모의 특별찬양(특송)이 진행됐다.

사모들의 현장 간증도 이어졌다. 한경자 사모(한마음교회)는 힐링캠프 참석을 통해 얼굴의 수심이 사라지고 말씀 암송의 소망을 갖게 된 개인의 변화와, 교회 내 중보기도 모임이 회복된 결실을 나누며 사역팀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한진주 사모(컴패스 바이블 처치)는 “처음엔 재능 기부 차원의 캘리그라피 강사로 참여했으나 점차 사모님들의 깊은 헌신의 무게를 공감하게 됐다”며 “작은 재능으로 곁에서 쉼과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로 서겠다”고 고백했다.

예배 중에는 지난 6월 1일 소천한 엘피스 임원 故 신혜원 사모를 기억하는 추모 시간도 마련됐다. 손영주 간사가 고인의 문집 〈이 아침을 어찌 넘기랴〉 중 한 대목을 낭독했으며, 참석자들은 현장에 참석한 유가족 신종락 목사를 격려하며 주님의 위로를 기원했다.

공로패 및 감사 상장 증정, 축도로 마무리

원홍연 목사(LA복음연합감리교회)가 선교헌금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특별히, 엘피스 사모 일동은 박운송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하며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과 순종,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사모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다”고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어 박우성 장로에게도 감사 상장을 전달하며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사모들을 품고 섬겨주었다”고 밝혔다.

1부 예배는 윤선식 목사(LFUMC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으며, 2부 순서에서는 유수열 목사(CGN TV 미주 지사 지도 목사)의 식사 기도 후 친교와 케이크 커팅식이 이어졌다.

한편, 엘피스사역원은 가정 회복을 목표로 여성 사역자 및 평신도 여성 지도자를 위한 MBTI 세미나, 리더십 코칭, 소통 세미나, 결혼예비학교, 부부 및 자녀교육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현재 이사장 김웅민 목사, 고문 윤선식 목사를 비롯해 전영호 박사, 이경식 박사, 변명혜 박사, Daniel Newman 박사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로스팰리스 연합감리교회, LA복음연합감리교회, 새생명비전교회, 한마음교회, 밸리 생명의 교회, 아이엠교회, 하늘문교회 등이 후원하고 있다.

임원으로 김은주 사모, 한경자 사모, 김두선 사모, 백은혜 사모, 한진주 사모, 이행복 사모, 손영주 간사, 이경민 간사, 김지홍 사모가 섬기고 있다. **주디 한 기자**

한국VOM “中 야양교회, 강제 철거 후 ‘벽 없는 교회’로 부활”

중국 당국의 거센 핍박으로 예배당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오성홍기가 세워졌지만,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의 ‘야양교회(Yayang Church)’ 성도들은 가정에 모여 신앙 모임을 꿋꿋이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저장성 타이순현 야양진에 위치한 야양교회 건물이 대형 굴착기 등 중장비에 의해 전면 철거됐다. 삼엄한 경비 속에 허물어진 예배당 터에는 현재 공원이 조성됐으며, 한가운데에는 주변을 압도하는 높은 깃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6년 3월, 저장성 원저우시에 위치한 야양교회는 방수포로 덮인 모습. 첨탑 십자가는 철거됐다. ⓒ 한국VOM

이번 강제 철거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은 당국의 ‘국기 게양’ 강요였다. 2025년 6월, 현지 공무원들이 교회 경내에 진입해 외벽을 헐고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려 하자 성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대규모 항의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교인이 구금되며 수개월간 교착 상태가 이어졌고, 결국 당국은 지난 5월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조치를 강행했다.

철거 항의 과정의 여파로 현재 야양교회 성도 20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다. 이 중에는 린언자오 등 4형제를 비롯해 주일학교 사역을 이끌던 지아이쥐안·린엔디안 부부 등 일가족이 다수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이들에게 반체제 인사 탄압에 주로 쓰이는 ‘시비 및 소란 유발’ 혐의를 적용했다.

야양교회는 20세기 초 중국의 저명한 설교자 워치만 니의 ‘지방 교회’ 운동에 뿌리를 둔 곳이다. ‘중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원저우시 인근 산악 지역에 위치해 당국의 규제를 비교적 덜 받았으나, 2014년 저장성 일대에 불어닥친 ‘십자가 강제 철거 작전’ 당시 최전선에서 저항하며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외견상으로는 지방 정부가 종교 탄압에서 완승을 거둔 듯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 선교계의 분석이다. 건물을 잃은 성도들은 다시 ‘지하’로 들어가 여러 가정으로 흩어진 채 비밀리에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

현숙 폴리 한국 VOM 대표는 “건물이 파괴되고 지도부가 투옥되면서 야양교회는 오히려 살아 움직이는 ‘벽이 없는 교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당국은 시온교회나 이른비언약교회처럼 외형적인 예배당 건물은 빼앗을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몸 된 성도들의 영원한 신앙은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형구 기자**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20년 전 가입한 생명보험, 골동품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쓰니 은퇴자산!”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가족에 대한 책임과 미래에 대한 준비로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보험에 대한 인식에 오해가 많고, 생명보험하면 달갑지 않다고 해도 10년 전, 20년 전에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어김없는 질문들이 쏟아 집니다. *“내 보험 도대체 언제까지 내는 겁니까”, “이 생명보험 아이들도 다 컸는데, 이제 취소해야 겠어요”, “이 보험에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나요? 얼마나 될까요?”* 등등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생명보험의 목적과 효율성이 달리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가입한 생명보험,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똑소리 난다고 할까요.

1. 오래된 생명보험, 은퇴 플랜으로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캐쉬밸류가 쌓이는 플랜이라면 생명보험은 아주 훌륭한 은퇴 플랜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만불짜리 생명보험을 20년 전 가입했는데, 자녀들은 이제 완전히 성장하고 독립하여 자리잡고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은퇴하고 나니 조금이라도 은퇴 인컴이 더 들어오면 좋겠다고 필요를 느끼곤 하지요. 이럴때 생명보험은
첫째, 생명보험 내에 쌓인 어카운트 캐쉬밸류를 빌려 씀으로써, 인컴세금도 내지 않고 한달에 1000불, 2000불씩 내게 필요한 은퇴 인컴으로 찾아 쓰는 경우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모든 돈을 다 찾아 쓰지 않는 한 보험은 유지되는데 장례비 정도의 금액을 자녀에게 남기고 나머지는 내가 찾아 쓰시 는 겁니다.

둘째, 장례비 조차도 남겨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다면, 생명보험의 캐쉬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겨서 매달 따박따박 소셜연금처럼 찾아 쓰는 플랜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생명보험의 캐쉬밸류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어뉴이티로 옮겨서 보험료로 빠지는 부분 없이 더 높은 이자를 받으며 은퇴 플랜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2. 오래된 생명보험, 암 같은 중병이나 롱텀케어 때 확실한 플랜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조건입니다. 미국에서 암, 심장병, 뇌졸증, 신장투석이나 주요 장기 이식등과 같은 병의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잃어서 일을 쉬게 되고, 벌어 드리는 인컴은 중단되게 되지요. 이때는 보험료 조차도 어쩌면 내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을 취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에 암 진단 시 사망보상금을 살아있는 내가 미리 받아 쓰는 조건, 즉 리빙베네핏이 있는 플랜으로 생명보험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한달 우리 부부 6천불로 살 수 있겠지 계획했다 하더라도, 롱텀케어 상황의 진단을 받을 때 예상치 못한 롱텀케어 월 평균 비용 7,500불로 인해 부부 한분만 롱텀케어 상황이 되면 나머지 한분의 은퇴는 한 순간에 위협에 처하기도 됩니다. 생명보험에서, 6가지 생활 기능 중 2가지 이상을 홀로 수행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롱텀케어 진단을 받게 되면 역시 사망보상금을 살아있는 내가 미리 받는 리빙베네핏이 중요합니다. 다만 10년 전 20년 전 가입한 보험이 이 리빙베네핏 혜택이 없다면 이제 그 생명보험도 살아 있는 내가 혜택을 보는 리빙베네핏이 포함된 생명보험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3. 오래된 생명보험, 더 많은 이자를 받고 자라는 은퇴 저축 플랜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자가 너무 적어 캐쉬밸류가 적게 자라고 있다면, 혹은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새로운 높은 이자의 생명보험으로 옮겨서 더 많은 캐쉬밸류를 쌓을 수 있도록 당연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금융상품이 좋아집니다. 같은 생명보험이라도 더 좋은 상품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꼭 그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보는 손해는 없는지 꼭 전문가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도 역시 최고의 전문가 그룹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 입니다.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7825 Engineer Rd., Suite 201, San Diego, CA 92111

Open Stewardship Foundation

커뮤니티에 **따뜻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2026년 수혜 단체를 찾습니다!

Open Stewardship Foundation은 한인 사회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의 프로그램 확장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비영리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www.openstewardship.com

신청서 다운로드와 접수, 자격요건 및 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 단체 모집 안내

신청기간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1월 30일

수혜단체 발표

2027년 2월 28일 예정

지원금 전달

2027년 3월 11일 예정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증빙 서류들과 함께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수혜 단체 발표 및 지원금 전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info@openstewardship.com



openbank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은 오픈뱅크에서 후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Open Stewardship Foundation

213-593-4885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